

겹겹이 그린 나뭇잎으로...유년의 상처 덮은 거장

December 29, 2021 | 김유태 기자

Page 1 of 1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매일경제 A33



서울 삼성동 국제갤러리 K1관에서 열리는 '유칼립투스의 향기' 전시장에서 펼쳐진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들. (사진 제공=국제갤러리)

겹겹이 그린 나뭇잎으로 ... 유년의 상처 덮은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 '유칼립투스의 향기'展

1982년 뉴욕현대미술관(MoMA) 첫 회고전을 앞두고 진행한 한 미술 잡지 인터뷰에서 당시 71세였던 프랑스 출신 미국 화가이자 조각 거장인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0)는 이렇게 고백했다. 유년 시절 아버지의 가정교사의 길고 긴 불륜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그 불륜은 어머니의 폭언과 방조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여성의 경제성을 둘러싼 부르주아의 고민과 트라우마는 98년을 삼았던 그의 생애 전체를 지배했다. 21세 무렵 어머니 작고 이후 느낀 지극한 슬픔은 강가의 다리에 서서 그의 몸을 뛰어내리게 만들었고 부성을 거날한 적노와 모성을 그리워하는 애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박제돼 오늘에 이르러 독특한 선행 작품으로 캔버스에

대형 거미조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 화가·조각가 어린시절 아버질에 충격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어머니 병 치료제였던 유칼립투스나무 화폭에 식물 일부만 확대하거나 절개한 모습 선으로 그려 남겨졌다.

부르주아의 작품이 현재 서울 한복판에 전시 중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칼립

투스의 향기(The Smell of Eucalyptus)'는 거장의 붓 터치를 볼 수 있는 귀한 전시다. 윤혜정 국제갤러리사는 "부르주아 생애 마지막 10여 년간 작업한 종이 작품"이라며 "특히 '내면으로(#4)' 연작은 부르주아 추방 형식과 주제 실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 1층에 들어서면 부르주아가 남긴 시 한 편이 벽면에 새겨져 있다. 전시 주제인 유칼립투스에 관한 그의 진술한 고백이다.

'둘씩 찌지어친/ 짐의 창문들./ 모두 깊직한 모양 한 채./ 둘씩 찌지어 달린/ 유칼립투스 잎사귀들/ 거대한/ 자유의 나무가 있었단/ 르카네에서의 나의 어린 시절.' 유칼립투스는 부르주아의 유년을 상징하는 식물이자 치유와 힘을

전해준 은유로 이해된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 어머니 간호를 위해 유칼립투스를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고, 작업실에서 유칼립투스 잎사귀를 태워 향기를 자주 맡았다고도 전해진다.

갤러리 본관 건물 K1관과 별관 건물 K3관에는 식물의 이미지를 확대해 일부분만 그리거나 기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작품들이 펼쳐져 있다. 대부분 예정 작품으로 식물과 낙엽을 연상시키는 곡선, 씨앗의 기이한 성장 모습, 수많은 눈동자가 몸의 외곽에 새겨진 그림이 소나의 기만 한 150cm 인화 풍이에 그려져 있다.

눈에 띄는 작품은 '잎사귀들(#4)'로 검은 선을 종이에 그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채색이 이뤄진 작품이다. 종이에 뾰족한 식물의 잎사귀를 여럿 그린 뒤 연못모로 종이를 감쌌고, 그 위에 채도를 달리한 분홍빛 톤감으로 잎사귀를 채색

했다. 우측 하단에는 루이즈 부르주아를 뜻하는 'LB'를 붉은 실로 수놓아 작가 서명을 대신했다.

'내면으로(#4)' 연작은 유칼립투스를 절단한 표면이나 식물 줄기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 그렸다. 반복되는 형상 속에서 어렴풋하게 완성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여성의 경제성'이란 작가의 주제 의식에 가닿는다. 마치 꽃과 사막의 미국 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회화 작품은 보통 완성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작품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마련이지만, 부르주아의 이변 작품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의 힘을 어떻게 또 얼마나 내재하는지, 또 잎사귀를 하나씩 그리며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노고의 함의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겼다.

부르주아의 한국 전시는 2012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는 현대미술가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 테이트모던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는 대규모 회고전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10m짜리 대형 거미 작품 '마망(Maman)'으로도 유명하다. 공중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 모습이 마치 여러 색실로 그림을 짜 넣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고 또 집뿔을 퍼뜨리는 해충을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마치 자신을 지키는 어머니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생전에 고백했다. 조각과 회화를 넘나드는 부르주아의 상상력은 거침이 없었는데 그가 '스파이더 마망(거미 알마)'이란 별칭으로 불린 이유였다. 전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김유태 기자